

# “전남의대 설립 ‘정부 추천 대학’ 늦어도 11월 초 결정”

### 용역기관, 순천대 공모 불참해도 적합 여부 따져 전남도에 추천 7~9일 나주·목포·순천시 도민공청회...순천대 막판 참여 ‘주목’

전남도가 전남 국립 의대 신설 대학으로 정부에 추천할 대학이 늦어도 11월 초에는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지난 26일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나주·목포·순천에서 각각 제1차 도민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공모에 계속 불참 의사를 밝힌 순천시와 순천대는 용역기관의 인터뷰 요청에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남도의 공모 절차 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남도 공모의 절차가 사실상 진행되면서 그동안 공모 불참 의사를 밝힌 순천시와 순천대의 막판 참여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용역기관은 1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설립방식선정위가 조만간 기본안을 마련한 후 도민 공청회, 여론조사,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설립 방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설립 방식이 결정되면, 공모를 실시해 평가를 거쳐 전남도에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 공모 과정에서 한 개 대학만 참여할 경우 한 차례 공모 연장을 한 뒤 추가 접수가 없으면 적합 여부를 평가해 선정 대학을 전남도에 보고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7일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8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9일 순천 전남동부지역본부 등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린다. 인터넷이나 유선 등을 통해 사전등록해야 참석이 가능하며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 미추천 대학·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대책 등 지원 방안 등 두 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낼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설립 대학 및 지역에 관한 의견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청회는 8월 중순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의학교육, 보건의료, 대학 운영, 경

제성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설립방식선정위의 위원장은 주영수 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추천 후보자 중 과반 이상 득표해 선출됐다. 주 위원장은 대전 출신 서울대 의학박사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용역기관 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은 지역 및 출신 학교 이해관계를 배제해 선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병길 에이티커니코리아 파트는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은 오랜 지역 현안으로 이번에 반드시 2026년 신입생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공모에 참여할 대학들도 일찌감치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식으로 의대 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공모에 대학 한 곳만 참여한다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접수한 대학이 없다면 공모에 응한 대학 한 곳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전남의 국립대학들이 모두 전남 국립 의대 신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더불어 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을 찾아 정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정원 배정을 요청하는 서의원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고 전남도는 전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에게 “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으로,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장·KBS 이사 임명안 재가 민주당, 이진숙 탄핵·국정조사 ‘투트랙 전략’으로 맞붙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1일 재가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전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위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진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위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진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루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론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 투트랙 전략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방송 장악 행위’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

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이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서류를 들고 온 것을 거론하며 “그 글을 (이 위원장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끝난 상태에서 이를 무효로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민주당에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당장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고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8월에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돼야 하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도 중요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아빠 찬스’ 이숙연 후보자는 보류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후보자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 후보와 박 후보

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두 후보와 함께 임명제정됐던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착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